

경기도, DMZ 일대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조성



14

경인일보

2019년 02월 20일 (수)
종합 01면

DMZ 찾는 베를린 장벽 벽화 거장

道 초청 카니 알라비 오늘 방한... '예술공간' 조성 방안 논의



독일 본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에 평화의 가치를 불어넣은 작가 카니 알라비 64·사진가 20일 경기도의 초청으로 방한, DMZ를 찾는다.

평화의 공간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로, DMZ의 가치를 살려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DMZ평화포럼 등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모습과 맞물려있다. 남북 평화협력 무드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의 DMZ 방문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카니 알라비 독일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장과 DMZ를 방문할 계획이다. 카니 협회장은 베를린 장벽 붕괴 전인 1990년 벽 동쪽에 21개국 118명의 미술작가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그

려놓은 1.3km길이의 벽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참여했던 작가다. 1996년부터 이스트사이드갤러리 협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카니 협회장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었던 2015년 본단의 아픔을 주제로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 '미안해 정말 미안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바 있다. 당시 카니 협회장은 "한국의 DMZ에도 예술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낼 수 있을 희망한다"고 말했었는데, 3년 반만에 직접 이를 위한 행보에 나서게 된 셈이다.

이 부지사와 카니 협회장은 이날 DMZ 일대를 둘러보며 이곳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 측은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의 DMZ 방문은 이곳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곳으로 조심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기자 kangsi@kyeongin.com

경기도, DMZ 일대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 독일 갤러리협회와 맞손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 경기도> [경인방송=한준석 기자]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독일 베를린 장벽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와 DMZ 일대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베를린 장벽 1.3km 구간에 21개 국가 118명의 화가가 그린 105개 그림으로 야외 벽화 갤러리를 만들어 독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의 노하우를 공유해 DMZ 일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카니 알바니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장과 요로그 베버 임원 등 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카니 알바니 협회장 등은 오는 21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독개다리, 임진각 생태 탐방로 등 DMZ 일대를 둘러보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간담회를 통해 관광 명소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hjs@ifm.kr

남북 접경지역에 부는 봄바람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총력” 경기 “한국판 베를린 장벽 벽화”

이른바 '접경지대'인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지방정부로서 점진적 평화통일 모델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독일 베를린 장벽 벽화 명소처럼 임진각 일대에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야외갤러리 주성을 추진한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7기 도정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대선에서도 약속한 강원도 맞춤형 공약이다. 강원도내 10개 시·군을 묶어 정부 직할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점진적 평화통일의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는 '국제자유도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제주와 같지만, 설치 목적이 '평화·교류'라는 점에서 다르다.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외교와 군사, 안보 사항을 제외한 남북 접촉 승인권 등 남북교류에 관해 차별화된 권한을 갖게 된다. 남북협력기금 일정액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평화통일특별지구

에서는 남북 주민과 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부자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도 제공된다. 남북한 경제협력 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선치해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경제활동 공간으로 활용

**강원도, 북쪽과 협력 특구 설치
남북 주민·상품 등 자유왕래 하게**

**경기도, 임진각 일대 갤러리 추진
“DMZ를 세계적 평화의 무대로”**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계획이다.

또다른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파주 임진각 일대를 '제2의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뒤 남은 베를린장벽 1.3km에 조성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야외 공개 갤러리다. 세계 20여개국의 작가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그린 105개의 그림이 이어져 있다. 봉독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벽화인 〈형제의 키스〉 등으로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의 명소가 된 곳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후 카니 알라비 국제아트사이드갤러리 협회장과 함께 파주시 임진각 일대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봤다. 이 부지사는 “베를린장벽과 에루살렘 통곡의 벽처럼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전세계인들이 찾는 평화의 무대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독 현장을 지켜봤던 카니 알라비는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이끈 역사는 물론(한국가가) 분단된 현실을 비무장지대만큼 잘 보여주는 곳이 없다. 동료들과 논의해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의선 남쪽 도라산역과 북쪽 판문역 사이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통합 출입사무소인 가칭 '남북국제평화역'(통합 CIO)의 조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파주 북한군 묘역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수혁 홍용덕 기자 psh@hani.co.kr

DMZ 찾은 카니 알라비 '글로벌 관광명소화' 논의



20일 오후 카니 알라비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장(맨 왼쪽)과 이회경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카니 알라비 이스트사이드 협회장 등 일행은 임진강 평화누리, 독개다리, 대성동 마을, 캠프 그리브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DMZ 일대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DMZ 일대를 베를린 장벽 1.3km 구간을 야외 벽화 갤러리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것과 같이 관광 콘텐츠를 개발,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제공

인터뷰 카니 알라비 독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장

“DMZ 예술 프로젝트, 세계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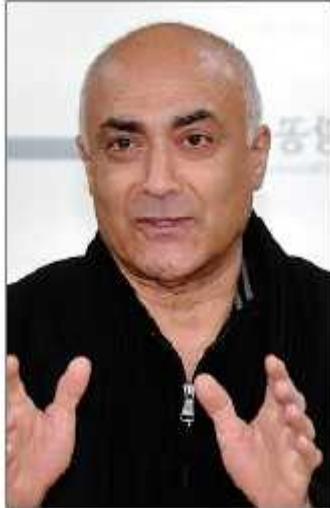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DMZ만의 멋진 작업이 진행되고, 이 과정 자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카니 알라비(Kani Alavi) 독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장은 20일 파주 독개다리에서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2개월 뒤

예술가들이 베를린 장벽에 예술작품을 남겼다”며 “여기 DMZ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0년 개관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독일 베를린 뮐렌 슈트라세에 있는 베를린 장벽 1.3㎞ 구간에 조성된 야외 벽화 갤러리다. 세계 21개국 118명의 화가가 그린 105개의 그림으로 구성돼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

카니 알라비 협회장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작업 당시 예술가들이 모였을 때 매년 400만의 관광객이 방문할 줄 아무도 몰랐다”면서 “당시 예술가



들은 장벽을 부수는 과정 중 일부를 남겨 후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DMZ는 프로젝트 진행 시 결과물만 볼 수 있었던 독일과는 다를 것”이라며 “한국에서 세계 예술가들이 작업한다고 하면 큰 행사가 되고, 전 세계인이 관심을 두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독일과 다른 환경의 DMZ 작업과 관련해선 “예술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맞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도 예술가들이 즉흥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던 만큼 DMZ만의 멋진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카니 알라비 협회장은 “독일인들이 통일이라는 대단한 사건을 겪었듯이 비슷한 상황의 한국, 특히 DMZ에 와서 보니 흥분된다”며 “통일은 한국인만의 관심이 아닌 전 세계의 관심이다. 한국에서도 평화롭게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DMZ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위해 獨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 방한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조성
분단 상징 명소 노하우 공유

경기도가 발표한 국제평화역 추진에 이어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계획까지 나오면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베를린 장벽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킨 독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DMZ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 일대를 베를린 장벽 13km 구간을 야외 벽화 갤러리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처럼 관광 콘텐츠를 개발,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아틀간 카니 알라비(Kani Alavi) 협회장 등 협회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 및 DMZ 일원 현장방문 등을 가진다.

이날 카니 알라비 협회장과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등 일행은 임진각 평화누리,독개다리, 지하링크 BEAT 131(사진전시관), 임진각 생태탐방로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DMZ 일대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도와 협회는 '분단'의 상징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명소가

되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와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실시, DMZ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이화영 부지사는 "베를린 장벽을 예술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로 조성했던 협회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대기쁘다"라며 "DMZ가 분단의 아픔이 아닌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독일 베를린 뮐렌 슈트라세에 있는 베를린 장벽 13km 구간에 조성된 야외 벽화 갤러리로 세계 21개국 118명의 화가가 그린 105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독일의 베를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김주석기자

경기도, DMZ 일대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

獨 예술인장벽 벽화 갤러리 조성 단체와 협력 분단 상징을 역사적 명소 '개발' 노하우 공유

경기도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와 손잡고 DMZ를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키로 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는 독

일 예술인 장벽 13m 구간을 야외 벽화 갤러리로 조성, 세계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킨 단체다. 이는 예술과 관광 콘텐츠를 지

반, DMZ를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이틀간 일침으로 카니 갤러리 협회장과 요코그 배너 협원 등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 관계자를 초청했다.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이날 백곡에 이스트사이드협회 부회장, 이화영 노 평화유지사

등과 인천중 등 DMZ 일원 현장을 찾았다.

카니 갤러리 협회장 등 일행은 ▲임진각 평화누리 ▲독게다리 ▲지하병기 BEAT 131사건전시장 ▲임진각 생태탐방도 ▲다성동 마을 ▲캠코 그리브스 등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DMZ 일대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2005년 세계 평화유지군을 기기로 조성된 10만㎡ 규모의 대형 잔디언덕이다.

독게다리는 파주 분산탄 순천리와 장단면 노성리를 잇는 경의선 철도노선으로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다가 복원된 길이 106m 폭 5m 규모의 다리다. 국경 부 출입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민통선 내 관광사설이기도 하다.

지하병기 BEAT 131은 임진각 내 지하에 있는 아트 갤러리로 전쟁과 관련한 사진 및 미디어가 전시돼 있다.

특히 도와 협회는 '분단'의 상징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명소가 되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와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도 테드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인 문화 교류를 실시, DMZ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니 갤러리 협회장은 "DMZ는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DMZ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예술인 장벽을 예술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로 조성했던 협회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DMZ가 분단의 아픔이 아닌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첫날 일정을 마친 이스트사이드협회 관계자들은 21일 인천 등 DMZ 인근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독일 예술인 랄프 슈트르세에 있는 예술인 장벽 13m 구간을 조성된 야외 벽화 갤러리로 세계 일류급 작품들의 보기가 그린 10여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예술인의 대표작 관광지다. 신경호기자 ksh@